
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보건복지부 | | <h1>보 도 설 명 자 료</h1> | |
| 배 포 일 | 2018.10.04 / (총 2 매) | 담당부서 | 예비급여과 |
| 과 장 | 손 영 래 | 전 화 | 044-202-2670 |
| 담 당 자 | 강 준 혁 | | 044-202-2667 |

보건복지부는 10.4일자 기사 중 “상급병실 급여화, 대형병원들 배만 불렀다”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□ 기사 주요내용

- '18.7월 2·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7월 및 8월 입원 급여비(건강보험공단 부담금)가 1조8968억 원에 달하여 전년 동기('17.7~8월) 1조3673억 원 대비 38.7%인 5,295억 원이 증가하였고,
 - 이는 2·3인실 입원실 건강보험 적용, 병원의 입원실 구성 변경 등이 가장 큰 이유임

□ 설명내용

- 기사의 '18.7~8월 입원 급여비 1조8968억 원은 건보공단이 7~8월 지급한 지급시점 기준의 급여비로, 실제 7~8월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 급여비*와는 차이가 있음

* '18.10.4일 현재 '18.7~8월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 급여비는 6,179억 원이며,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·심사·지급에 시일이 소요되기에 6,179억 원이 해당 기간 입원 환자의 총 입원 급여비는 아님

- 또한, 위 기사의 입원 급여비는 2~6인실 병실료인 입원료와 입원기간 중 검사·처치·수술·의약품 등 입원 중 발생한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임

- 현재 기준으로 실제 7~8월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(병실료)만 비교할 경우 2017년은 1,954억 원인 반면 2018년은 896억 원으로 나타남
- 다만, 2018년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 관행상 최소 6개월 이상 급여청구가 더 들어올 수 있기에 현재로서는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음

<실제 7~8월 입원 환자 기준 입원급여비 변화 세부내역>

(단위 : 억 원)

| 구분 | '17.7~8월 | '18.7~8월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총 입원 급여비(C=A+B) | 1조2820* | 6,179 |
| 입원료(A) | 1,954 | 896 |
| 입원 중 진료비용(B) | 1조866 | 5,283 |

* 지급 기준으로 산출한 1조3673억 원을 재산출시 1조2820억 원으로 변경